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내년 1월 시행 차질 우려

주민 의견 수렴 완료됐지만 도의회 의견 청취 지연
도-행정시 의견 조율… 올 마지막 회기에 제출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정책 시행 시기가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시행에 앞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양 행정시는 앞서 지난 8월 제주도의회에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제456회 제2차 정례회에도 안건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번 변경안은 획일적인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높이-최고높이'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제외한 해제 대상 면적은 제주시 92.5%, 서귀포시 92.8%에 이른다.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최고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로 설정했다.

다만 최고높이를 적용하려면 한라산 조망과 비행 안전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올해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행정시가 제주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더라도 도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제주도가 2027년 1월 정책 시행 목표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의회에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제주도와 행정시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해당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정책 시행 시기와 관련해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견수렴 등 절차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한다"면서 "행정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내년 예산, 미래 성장동력·격차 완화 집중 투자"

이 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2027년도 정부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202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역대급 예산안에 대해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고향사랑기부자 대상 '탐나는전' 추첨 이벤트

12월까지 제주국제공항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올해 제주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나도♥제주도'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오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국제공항 1층 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부자는 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휴대전화로 기부내역을 확인받은 뒤, 현장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즉석 추첨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으로 당첨자에게는 '탐나는전' 3만원을 현장에서 지급한다. 받은 탐나는전은 도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문연단상에서

'유산 등재 4관왕' 제주해녀의 그늘



박 호 형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 바다의 상징이자 전 세계가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가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주해녀 인구는 2371명으로 2300명 선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전체 해녀의 63.2%가 70세 이상인 초고령화 상황에서 지난해에만 266명이 은퇴한 반면 신규 진입은 단 23명에 불과했다. 30세 미만의 청년 해녀는 제주 전역에 단 5명에 그치고 있다. 제주의 정신적 뿌리가 단절될 위기 앞에서 전향적인 정책적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제주해녀는 단순한 어업 근로자가 아니다. 지난 2015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16년), 국가무형유산

제주해녀 존립 위기 직면
세대 잇기 위한 정책 보완
청년 소득 창출 기반 마련

(2017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2023년)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이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다. 최근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며 주목받는 글로벌 K-콘텐츠로 급부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가 극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서도 다음 세대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해녀는 자신의 숨을 바다의 호흡에 맞추며 공존해 온 생태적 지혜의 실천자이자 상생의 철학을 시사하는 존재다. 아울러 어촌계라는 견고한 공동체를 통해 고령의 동료를 배려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분담해 온 연대의 문화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가치의 정수다.

이러한 유산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규 해녀 현장 적응을 위한 핵심 사업인 신규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43% 축소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입장벽과 경제적 한계라는 벽을 해소하기 위해 도정과 의회, 마을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 실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어촌계가 신규 해녀를 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도록 상생의 제도 정비를 이루고 우수 어촌계에는 정착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청년 해녀들이 다각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마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체류형 로컬 관광 상품 '해녀스테이' 사업을 제주 전역으로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예산 삭감의 위기를 딛고 해녀스테이를 고도화해 정착 초기의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들이 문화적 긍지와 경제적 안정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을 복원해 잠수질환 특수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해녀 문화 보존은 유산을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서 바다와 함께 호흡하게 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청년들의 활기찬 숨비소리가 제주 바다에 다시 울려 퍼질 때 제주의 정신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국내외 유산 4관왕이자 글로벌 K-콘텐츠라는 세계적 위상이 미래 세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따뜻한 입법과 든든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신규 해녀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

제주해녀와 동백, 하회탈, 한글 이름 짓기, 전래놀이 땅따먹기와 딱지치기 까지
하노이와 하이퐁시에서 펼치는 제주청소년 20명의 요망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제주청소년 글로벌 시민의식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 프로그램

JDC 도민지원사업

한&베 혼디갈락(樂)

참여기관(팀)
◦남원중학교(남원드림) ◦신엄중학교(엄장이)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오리)
◦제주시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소화기)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한콩)

기간 : 2026. 11. 3. ~ 11. 9.

교류 내용
◦11.3.(화) 제주 출발 -> 하노이 도착
◦11.4.(수) 환경 보호와 통합 교육의 현장을 찾다
·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베트남 맹그로부숲 조성 프로젝트 이정호 박사 강연)
· 하노이 빈민학교(장애·비장애 통합 초등학교) : 장애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 뀌인화장애인직업센터 : 장애인 생산품 만들기 과정 견학 및 참여
◦11.5.(목) 글로벌 리더십과 진로: 한인 기업가 정신과 자기주도 진로 투어
·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 김상현 브레트팩토리 대표, 지준혁 온담 총괄쉐프 강연
· 스스로 찾는 진로탐색(바리스타, 북스트리트, 호찌민단지, 탕룽수상인형극)
◦11.6.(금) 산업과 문화의 만남: 글로벌 제조 현장 견학 및 청소년 교류
· LG하이퐁생산법인 견학
· 하이퐁시 하이타인중학교 교류(한국 문화 알리기 및 상호문화교류)
◦11.7.(토) 소통과 연대: 하노이 대학생 및 아동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동행
· 광복사아동복지센터 : 시설 아동&자원봉사자&제주청소년 함께 놀이 활동
· 하노이키즈와 함께 베트남 역사·문화·음식 투어
◦11.8.(일) 지속 가능한 미래와 K-위상: 사회적 기업과 한국 브랜드의 현주소
· 메콩퀼트 : 소외 여성 고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체험
· 롯데몰 : 베트남 속 K-위상 알아보기
◦11.9.(월) 하노이 -> 제주 도착

지원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운영 사단법인 해피트리 HAPPY TREE Corporation, JEJU-DO, KOREA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